

2020. 10

머로우 소달리 서울 뉴스레터

2020 년 미국 주주총회 결산



머로우 소달리의 정보지 LIGHT HOUSE 미국판 최신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3 개월에 걸쳐 있었던 미국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시즌을 되돌아보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담았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 LIGHT HOUSE 에 담긴 여러 주제 중에서 우리 상장기업이 특히 주목할 만한 가상주주총회, 주주제안, 이사의 겸직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전체 원문은 왼쪽 사진 또는 [이 링크](#)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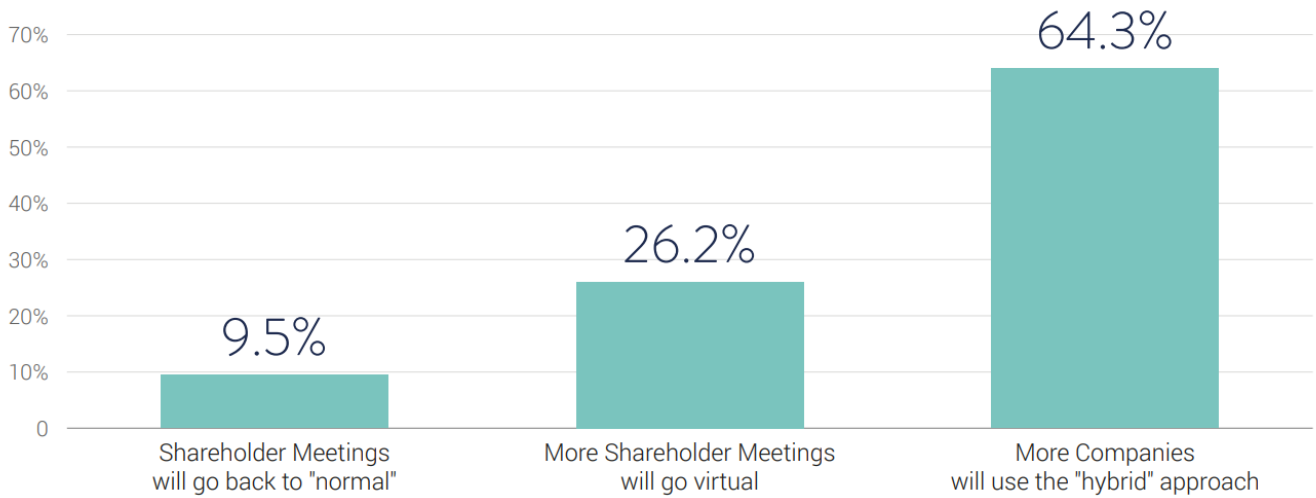
가상 주주총회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지난 해 8 월에 발간한 LIGHT HOUSE 에서도 가상주주총회(Virtual Shareholder Meeting)를 다루었지만, 당시에는 올해 코로나 19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상장기업 모두가 너나할 것 없이 가상주주총회를 도입할 줄도 몰랐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어난 아주 큰 변화이고, 상장기업과 주주총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도전과제 중 하나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주주총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혼란을 덜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사는 이미 주주총회부속서류를 송부하거나 공시했다라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해 변경사항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가상으로만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ISS 와 글래스루이스, 두 의견권 모두 가상주주총회만 개최하는 회사에 대해 이를 반대 권고의 사유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Proxy Insight 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 주주총회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 64.3%의 응답자¹가 물리주주총회와 가상주주총회를 함께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주주총회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26.2%의 응답자는 가상주주총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물리주주총회가 일반적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9.5%에 그쳤습니다.

¹ 전체 응답자 분포: 자산운용사 58 곳, 자산소유자 12 곳, 연구기관/협회 7 곳, 법무법인 6 곳, 정부/규제기관 1 곳, 노동조합 1 곳



SOURCE: Proxy Insight

가상주주총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많이 있지만, 단연 Broadridge 가 과반수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Broadridge 의 Maryellen Andersen 는 [최근 기고](#)에서, 올해 상반기 가상주주총회의 성장은 코로나 사태에 주로 기인한 것이 맞지만, 해당 원인을 제하고서도 가상주주총회는 매년 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과 주주 모두 가상주주총회에 익숙해지고, 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 년 1 월 1 일~5 월 22 일 사이에 열린 (Broadridge 가 서비스한) 가상주주총회와 관련된 몇 가지 통계>²

- 총 860 건의 가상주주총회 (2019 년 동기간 125 건)
- 평균 회의 시간: 22 분
- 평균 참석자 수: 59 명(곳)의 주주 및 게스트
- 총회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의 수 평균: 4 명(곳) (최댓값은 178)
- 주주의 질문 수 평균: 6 건 (최댓값은 316)
- 주주제안: 132 건의 주주총회에서 하나 이상의 주주제안이 다뤄졌으며, 80%이상의 주주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실시간으로 이뤄짐.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에 녹음된 자료를 재생하거나 기업측에서 대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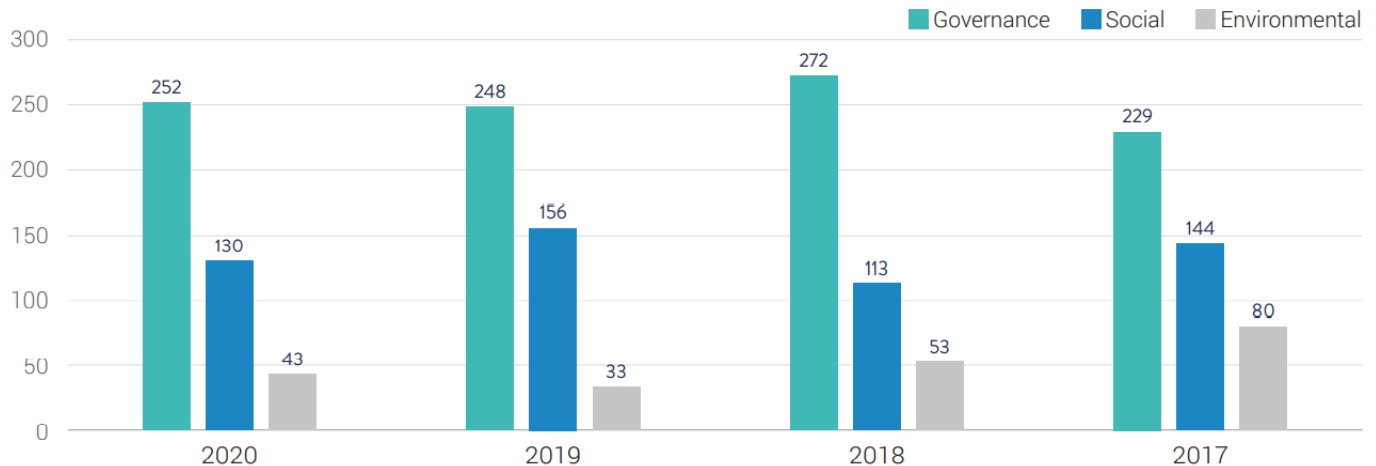
출처: Broadridge Financial Solutions

² Broadridge 는 6 월 30 일까지의 자료를 추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링크](#)) 6 개월 간 개최된 가상주주총회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94 건의 가상주주총회 (98%가 가상주주총회만 개최, 80%는 가상주주총회를 최초로 시행)
- 평균 50 명(곳)의 참석자 (대형주 평균 122, 중형주 평균 37, 소형주 평균 30)
- 5 건의 평균 질문 수 (97%의 주주총회에서 실시간 질의응답을 허용)
- 193 건의 주주제안
- 주주제안이 있는 주주총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주주총회에 비해 회의 시간이 더 길었고(각 34 분, 18 분), 참석자도 더 많음(각 146, 37)

주주제안 (2020 SHAREHOLDER PROPOSALS)

TOTAL SHAREHOLDER PROPOSALS 2017-2020



위 차트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1일까지 Russell3000에 포함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주주제안을 나타내며, 위임장 경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일 기준, 모두 425개의 주주제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2017년 이래로 주주제안 수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이는 회사의 사전적 대응, 주주제안자와의 원만한 합의, SEC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내내 주주제안의 절반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주제안이 차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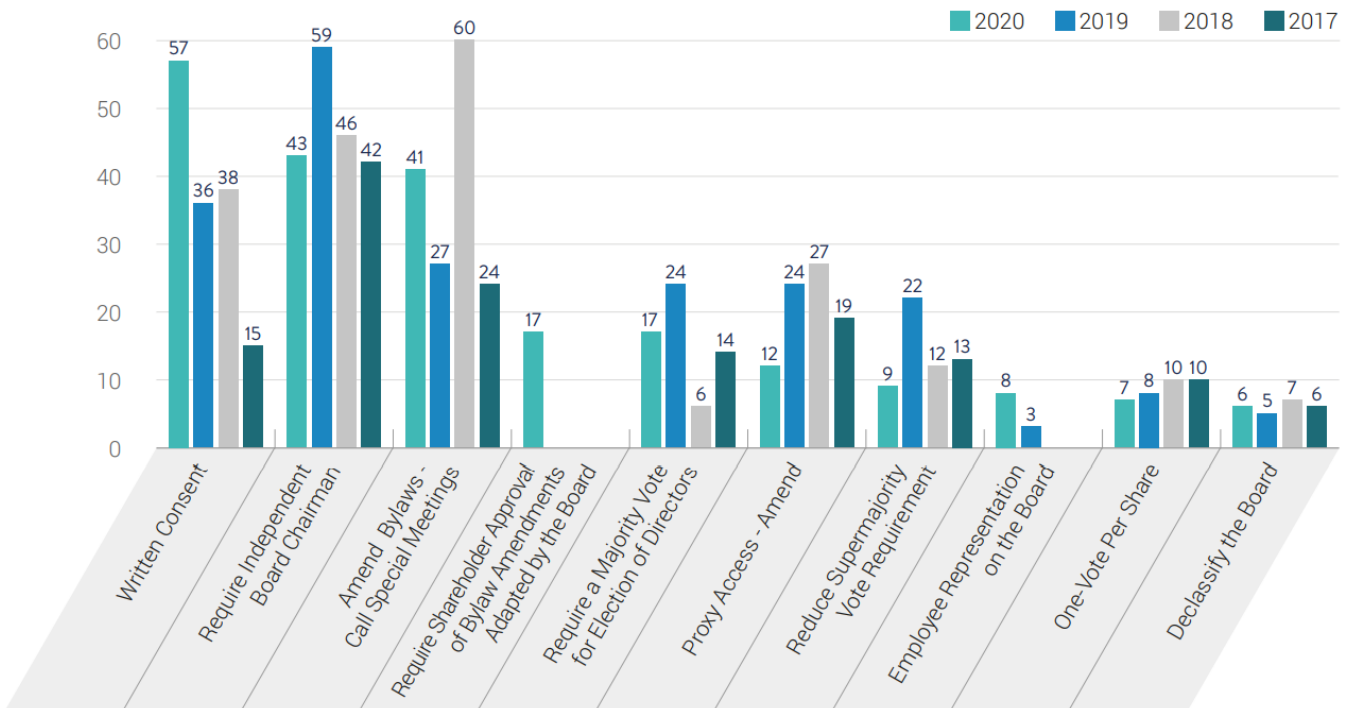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2020년 주주총회 시즌에 있었던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주주제안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서면에 의한 결의 (WRITTEN CONSENT)

서면결의를 통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 "서면결의" 주주제안이 올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는 회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에서 서면결의를 금지하고 있거나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결의를 할 수 있음을 정하지 않은 이상, 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서면결의의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결의 주주제안은 이사회로 하여금 서면결의를 금지한 정관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속력은 없고 이사회가 직접 해당 개정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서면결의가 가능해질 경우 주주들은 꼭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이사회와 경영진 입장에서는 상존하는 경영권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회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주주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2010년에도 70% 정도의 상장회사가 서면결의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면결의 주주제안은 꽤나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주주제안 주제입니다.

올해 서면결의 주주제안에 대한 평균 찬성율은 37%로 전년도 40% 대비 다소 감소했고, 세 곳의 회사³에서 과반수 득표를 했습니다. 이 역시 전년의 6 곳에 비하면 감소한 것입니다. 이 주주제안의 대부분은 John Chevedden 이 제안한 것인데, John Chevedden 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제안한 주주제안의 절반 이상이 표결이 부처졌습니다.

GOVERNANCE PROPOSALS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 (INDEPENDENT BOARD CHAIR)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선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반면, 평균 찬성율은 전년(29%)보다 증가한 34%를 기록했습니다. 과반수의 득표를 한 회사 또한 2019년에는 한 곳도 없었지만, 올해에는 2 개 회사⁴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했습니다. 이 주주제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 투자자들은 선임사외이사의 역할이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 견조한 재무적 성과를 보이는지,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양호한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³ Berry Global Gourp, Inc. (BERY), OGE Energy Corp. (OGE), Stanley Black & Decker, Inc. (SWK)

⁴ Baxter International (BAX), The Boeing Company (BA)

소수주주권 – 주주총회의 소집 (SHAREHOLDERS' RIGHT TO CALL SPECIAL MEETINGS)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주주권은 앞서 다룬 “서면결의”와 함께 꼭 정기주주총회가 아니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이나 부속정관(Bylaws)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가 소집할 수 있는데, 주주의 경우 그 요건이 아주 까다롭게 정의되어 있거나 심지어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주제안은 부속정관을 수정함으로써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권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주는 부속정관을 수정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주제안과 달리 이 주주제안은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주주제안에 대한 평균 찬성율은 41%로 전년과 동일하고, 표결에 부쳐진 해당 주주제안 중 절반 이상이 40% 이상의 찬성율을 보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주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꾸준히 제기되는 주주제안이며, 5 개의 주주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 건은 소집권한의 도입, 3 건은 지분율 요건의 하향입니다. 투자자와 의결권 자문회사가 이 주주제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권고할 때에는 회사 규모, 성과, 현재 도입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주주에 대한 대응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부속정관 개정 (REQUIRE SHAREHOLDER APPROVAL OF BYLAW AMENDMENT ADOPTED BY THE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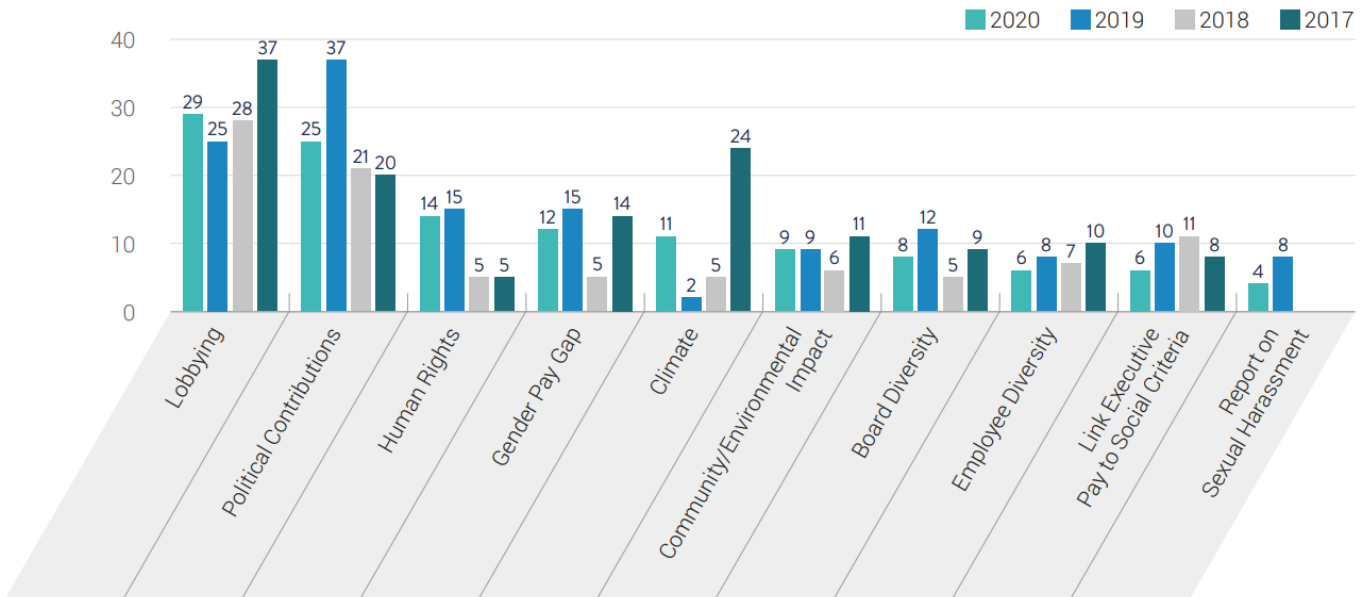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속정관은 주주 또는 이사회가 개정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주주제안은 올해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사회가 부속정관을 개정할 때 주주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7 개의 주주제안이 제기되었고, 평균 찬성율은 2% 수준에 불과하며 통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제안자들은 일부 개정의 경우 주주의 권리를 잠재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주제안의 절반 이상을 제안한 제안자는 “서면결의” 주주제안 때 등장했던 John Chevedden 입니다.

로비, 정치자금 기부 (LOBBYING/POLITICAL CONTRIBUTIONS)

로비 비용이나, 정치자금 기부 비용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 또한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주제입니다. 로비와 관련된 주주제안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고 평균 찬성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32%로 나타났습니다. 단 하나의 주주제안만이 통과되었는데⁵, 2019 년에도 한 곳에서만 통과되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주주제안은 전년(41%)보다 낮은 찬성율을 보였습니다만(36%), 네 곳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5% 이상의 찬성을 기록했지만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ISS 는 올해 모든 정치자금 기부 관련 제안에 찬성 권고를 했습니다.

⁵ Alaska Air Group, Inc (ALK)

ENVIRONMENTAL & SOCIAL PROPOSALS



인권 (HUMAN RIGHTS)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하는 주주제안은 12 건, 공식적인 인권 정책을 도입을 요청하는 주주제안은 2 건이었습니다. 평균 찬성율은 24%로 전년 32%에 비해 감소했고, 통과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인권 관련 주주제안이 통과된 사례는 전년, 그리고 전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 (GENDER PAY GAP)

올해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주주제안은 주로 [Arjuna Capital](#) 과 Proxy Impact 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주주제안은 성별, 민족에 따른 중위임금의 차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인재 채용 및 유지 측면의 다양성 관련 정책 및 위험에 관한 보고 요구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균 찬성율은 13%로 전년 24%에 비해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회사의 정보 공시가 강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19 년에 하나를 제외한 모든 주주제안에 찬성 권고한 ISS 가 올해에는 하나를 제외한 모든 주주제안에 반대를 권고했다는 것 또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통과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기후변화 (CLIMATE RELATED PROPOSALS)

올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주제안은 숫자도 증가했고, 평균 찬성율도 높아졌습니다(2019 년 32% → 2020 년 36%).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요청하는 2 건의 주주제안⁶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데 성공했고, 기후변화 관련 로비 비용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하는 1 건의 주주제안⁷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로비 비용은 파리 기후협약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시에 파리 기후협약을 부정하는 단체, 예를 들어 전미제조업협회 등을 후원하는 데 쓴 비용을 말합니다. 두 종류의 주주제안 모두 작년에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역사회 (COMMUNITY – ENVIRONMENTAL IMPACT)

지역사회 또는 환경 영향과 관련된 주주제안은 각각의 회사 또는 산업마다 다른,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석탄 연소에 관한 보고를 요청하는 것부터, 삼림 파괴, 폐음식물 처리, 지역주민 피해, 석유화학공장 가동, 비닐봉지 사용, 식수 오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을 다루는 주주제안이 있습니다. 주주들의 평균 찬성율은 22%이고, 올해 통과된 주주제안은 한 건⁸입니다. 통과된 주주제안은 AS YOU SOW 단체가 제안한 것으로, Phillips 66 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이 큰 걸프만 지역에 석유화학 설비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보건안전 위험을 측정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주주제안은 54.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양성 (DIVERSITY)

모두 8 개의 이사회 다양성 주주제안이 표결에 부쳐졌는데 이는 지난 해 12 개에 비해 감소한 것입니다. 평균 찬성율은 지난 해 18%에 비해 소폭 상승한 20%로 나타났고, 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정책 도입을 요구한 세 건의 주주제안 중 한 건⁹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같은 주제의 주주제안이 4 건 상정되었고, 2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이사회 다양성과 역량에 대한 구성표(matrix)를 공시하라는 주주제안은 4 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평균 찬성율은 4%에 그쳤고,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 다양성 증진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라는 주주제안 1 건¹⁰은 60%의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임직원 다양성에 관한 주주제안에 대한 평균 찬성율은 53%로, 지난 해 38%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세 곳의 회사¹¹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해는 두 곳)

⁶ J.B. Hunt Transport Services, Inc. (JBHT), Ovintiv, Inc. (OVV)

⁷ Chevron Corporation (CVX)

⁸ Phillips 66 (PSX)

⁹ Expeditors International of Washington, Inc. (EXPD)

¹⁰ National HealthCare Corporation (NHC)

¹¹ Fastenal Company (FAST), Fortinet, Inc. (FTNT), Genuine Parts Company (GPC)

이사의 겸직 (DIRECTOR OVERBOARDING IN 2020)

지난 몇 년 동안, 이사의 겸직은 기관투자자 커뮤니티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사들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그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이사의 겸직 수에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이 한도를 초과해 재직한다면, 투자자들은 해당 이사의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2019 년 초 Vanguard 그룹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는 이사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뒤로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른 대형 투자자들도 그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해 겸직 한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침은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외이사의 최대 겸직 수와 상장기업의 CEO 또는 비상임이사 겸직 수 등입니다.

2020 년 주주총회 시즌에도 이사 겸직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사회 의장에 적용되는 겸직 한도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LGIM)는 일반 사외이사에 대해 4 개 회사를 겸직 한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이사의 경우에는 2 개의 이사직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이사가 3 개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중 2 개의 회사에서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LGIM 은 이를 과도한 겸직으로 해석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4 개 혹은 5 개 이상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나 2 개 내지 3 개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CEO 에 대해서는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외이사의 겸직 수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겸직에 대한 관심은 최고경영자의 겸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2019 년 Spencer Stuart Board Index 에 따르면, S&P 500 회사 사외이사들은 평균 2.1 개의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는 지난 5 년 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회사 CEO 의 경우,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59%의 CEO 가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해 55%, 10 년 전 51%에 비해 증가한 것입니다. 1/3 정도의(37%) S&P 500 회사의 CEO 들이 하나의 다른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단 23 명의 CEO 만이 2 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4 개 이상의 상장회사 이사회에 참여한 사례는 2%에 불과합니다(79 명).

☞ 2019 Spencer Stuart Board Index [자세히 보기\(영문\)](#)

이사 겸직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기준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또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사회 구성에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ISS 는 매년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는데, 최근 설문에서 ISS 는 많은 투자자들이 겸직에 대해 ISS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ISS 의 지침은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5 개, CEO 에 대해서는 3 개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 응답한 투자자 중 42%가 사외이사의 겸직 한도로 4 개를 꼽았고, 45%의 응답자가 CEO 의 겸직 한도로 2 개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ISS 와 다른 자문기관들이 과도한 겸직에 관한 지침을 아마도 더 엄격한 수준으로 개정할 여지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머로우 소달리는 이러한 변화를 긴밀하게 관찰해 고객사가 어떤 중대한 변화도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ISS 의 2020 년 의결권 행사 지침에 관한 설문 결과 [자세히 보기\(영문\)](#)

TOTAL ALLOWABLE DIRECTORSHIPS THRESHOLDS

INSTITUTION/ ADVISORY FIRM	DIRECTOR TYPE			
	Independent	CEO (including their own board)	NEO (non-CEO)	Board Chairmanships
ISS	5	3*	5	
Glass Lewis	5	2*	2	
Vanguard	4	2*	2	
BlackRock	4	2	4	
SSgA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4	2	2	3
Invesco	6	3	6	
J.P. Morgan	4	3*	4	
BNY Mellon	6	3	6	
Northern Trust	4	2	4	
Goldman Sachs	5	3*	5	
Norges (NBIM)	5	5	5	2
Legal & General	4	2	4	counts as 2 roles
T. Rowe Price	5	3	5	
AllianceBernstein	3	2*	3	
Massachusetts Financial	4	2*	4	

* CEO 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권(withhold) 권고/투표함

ABOUT MORROW SODALI

머로우 소달리(Morrow Sodali)는 對주주 서비스 및 기업지배구조 전략 자문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경영활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지를 극대화시키는 데 최적의 동반자입니다.

머로우 소달리는 기업지배구조 자문에서부터 ESG 컨설팅, 주주 소통 및 관여활동 지원, 자본시장 정보제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대행, 주주행동주의 자문, M&A 등 구조개편 자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통해 이사회 및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머로우 소달리는 효과적인 지배구조 공시, 주주와의 신뢰 관계 구축, 전략적 목표에 대한 지지 기반 극대화를 통해 고객사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욕과 런던에 있는 본사를 포함하여 주요 자본시장 곳곳에 지사를 두고 있는 머로우 소달리는, 전세계 약 40 개국에서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700 여 개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적합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업계에서 머로우 소달리가 유일합니다

이 자료는 MORROW SODALI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번역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한 것입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통해 MORROW SODALI 홈페이지 (<https://morrrowsodali.com/insights>)를 방문해 주십시오.

CONTACTS

정성엽**대표**s.chung@morrowsodali.com

T. 02 6226 7266

M. 010 8170 1000

방문옥**상무, 기업지배구조**m.bang@morrowsodali.com

T. 02 6226 7268

M. 010 5744 0577

장우진**매니저**w.jang@morrowsodali.com

T. 02 6226 7267

M. 010 9973 4711

OFFICES

NEW YORK

509 Madison Avenue
Suite 1206
New York, NY 10022
P. +1 212 825 1600

LONDON

103 Wigmore St
Marylebone, W1U 1QS
London, United Kingdom
P. +44 207 355 0921

SYDNEY

135 King Street
Suite 25.02, Level 25
Sydney NSW 2000
P. +61 2 80 22 79 35

BUENOS AIRES

Cap. Gral. Ramon Freire 1865
CABA - 1428
Buenos Aires, Argentina
P. +54 11 4555 7767

FRANKFURT

Mainzer Landstrasse 50
60325
Frankfurt am Main, Germany
M. +49 176 6366 7485

HONG KONG

Unit 1106, Two ChinaChem Central
26 Des Voeux Road Central
Central, Hong Kong
P. +852 2158 8404

MADRID

Calle de Almagro 3
28010
Madrid, Spain
P. +34 9142 91 412

MELBOURNE

101 Collins Street
Level 27
Melbourne VIC 3000
P. +61 3 9653 7454

PARIS

29-31 Rue de Courcelles
75008
Paris, France
P. +33 1 79 97 13 66

ROME

Via XXIV Maggio, 43
00184
Rome, Italy
P. +39 06 45212800

SAO PAULO

Rua Prof. Atílio Innocenti 165, 2º Andar
Vila Nova Conceição
São Paulo - SP, 04538-000, Brazil
M. +55 11 972 783 858

SEOUL

Suite 1637, Level 16, Tower 8,
7 Jongro 5gil, Jongro-gu,
Seoul, 03157, Republic of Korea
P. +82 2 6226 7267

STAMFORD

470 West Avenue
Suite 3000
Stamford, CT 06902
P. +1 203 658 9400

Local Partnerships:

BEIJING
MEXICO CITY
SAO PAULO
ZURICH

morrowsodali.com